

# “저금리 국면 지속 전망… 대출은 변동, 예·적금 고정 유리”

##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경제 저성장 대응 방안 등 강연은 퇴 후에도 근로소득 유지 강조 “금융민주주의’ 시대 준비해야”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번갈아 찾아온다. 올해는 급격한 위기보다는 저성장에 가까울 것”이라며 “저성장은 차별화를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김영익 소장은 지난 25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강연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트럼프 2기 출범과 정책 방향성 ▲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개인과 기업의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가 약 5년간 성장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했다”며 “트럼프는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커지는 와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의 막대한 수준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에는 회비를, 무역에는 관세를 요구

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세수 부족을 극복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석유 생산을 늘려 물가를 낮추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는 개인이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오는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성장률이 낮아도 금리만 오를 수가 없다. 금융소득이 감소세인 만큼 100세까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職)은 영원한 게 아닌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전망이다 만큼 대출은 변동금리로, 예·적금은 고정금리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탄력적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정책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차별화 때문에 자식세대가 부

모세대보다 가난해졌고, GDP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 들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선 경제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경제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제시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모두가 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라며 “모두가 금융을 통해 부를 일궈내는 ‘금융민주주의’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부동산 시장 흐름 ‘울·출·박’ 실수요 기반 환금성 따져야”

〈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

##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회복기 진단… 생존법 모색 “투자시 무난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부동산 상승장이 아닌 회복기”라며 “시장 타이밍보다 가격 중심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시장 뷰,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시장 흐름을 ‘울·출·박(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회복기 시장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자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시공간을 공유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는 만큼 30대 아들, 딸이 사고 싶어하는 집을 사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며 “신혼부부부터 읍·면 거주민까지 젊은 세대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 흐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그는 “부동산을 고를 때는 편식하는 것이 맞다”며 “무조건 팔리는 상품, 즉 환금성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나 상가보다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부동산의 본질은 환금성에 있고 결국 잘 팔리는 것이 살아 남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산 구성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을 자산의 50% 이하로 줄이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가난을 기억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을 선택적 소비재로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무난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보다 대중의 선택을 믿는 게 낫다”며 “시장에서는 미학이나 철학보다 실제 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Fighting!**

생명보험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